

축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역사

일시: 1999년 2월 24일 수요일

제목: R의 섭리 축구 인생

설교: 주지형 강도사 (전주 수성 교회 교역자)

장소: 익산 주안 교회

<<섭리축구의 이해>>

1. R은 왜 축구를 하시는가?

->R은 축구를 통해 말씀을 재 교육하신다-6755.

월명동 행사때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축구이다. 설교보다 축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언젠가 R이 "너희들이 축구할 때 자세히 보라. 축구를 응원만 하지 말고 왜 축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자세히 보라" 하셨다.

말씀시간보다 축구하는 시간 많이 활용하는 것 어떤 뜻이 있다.

축구시간은 말씀시간 만큼 중요하다.

[성경말씀 : 골로새서 2:3]

성경에는 그리스도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는 시대의 주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깊이있게 보지 못할 때 많다. 축구할 때 깊이있게 보아야 하는 것 필요하다.

깊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2. 축구 목적

-> 축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뛰는 전술, 전략을 보여주신다.

섭리 축구 외부사람이나 처음 본 사람은 은혜받고 들어왔다가 처음 축구보고 시험든다.

축구를 보면서 은혜받는 사람 손들어 봐라. 없다.

축구 모든 골인은 R혼자 축구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만만히 준비해둬야 한다.

사도의 사명은 증거이다.

세례요한 사명은 빛에 대한 증거이다.

역사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므로 빠져리게 아픈 시대, 역사의 실수가 있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증거 앞에 서 있다.

3. 섭리사 축구

-> 중심자 축구(섭리축구를 이해하는 것)

세상에서 이기는 축구가 아니라 섭리축구는 중심자 축구이다.

하나님이 중심인물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축구를 통해 다시 교육받는 것이다.

중심자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해야 한다.

4. 패스 (축구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축구에 있어서 가장 생명시 하는 것은 중심자를 통해서 패스하는 것이다.

* 패스의 핵심- 신속하게, 정확하게

* 패스 생명- 신속하게, 정확하게, 여유있게 중심자 패스

1) 보다 중심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패스 해줘야 한다.

월명동 축구하다가 패스를 안할 때 많이 야단 맞는다. 섭리 축구는 중심자와 함께하는 축구이다. 말씀을 통해 중심자를 통해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들었다. 뭔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2) 패스는 자기가 혼자 골을 몰고 가다가 상대방에게 뺏기게 생겼을 때 패스하는 것은 패스가 아니다.

축구장에서 볼은 생명 다루듯이 해야한다. 볼을 갖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뺏긴다. 어떤 생명 전도했을 때 패스의 생명은 신속,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상대방이 이미 자기를 감싸고 있으면 뺏긴다.

3) 패스는 우리편이 받기 좋게, 여유있게 패스하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패스, 가장 안전하게 중심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신입생 비유]

신입생 문제 있으면 보다 빨리 패스하면 안전하게, 더욱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안좋고 힘들 때 패스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받는 편도 부담이 생기고 어려울 때 잡기 힘들다. 보다 체계적으로 패스해야 한다. 전도사에게 목회자들에게----

4) R은 축구골 한 골 넣을 때마다 한 생명이 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넣는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등으로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갖고 넣는다.

5) 볼을 다룰 때

애인 다루듯이 거칠게 다루면 안된다. 툭툭 차면서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 생명 다룰 때도 애인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5. 팀워크, 조직력 (축구 생명)

섭리축구 심정일체 되는 것이다.

1) 섭리 될 때 심정적인 팀웍,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서로 팀웍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수다"고 하셨다.

[비유론] 왕벌조직

2) 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축구해야 한다.

볼만 쫓아 다니는 것은 동네 축구이다. 자기 위치에서 축구해야 한다. 섭리도 다 자기의 위치가 있다. 때론 볼만 쫓아다니고 전도만 하다보면 관리 핑크나고, 관리하다보니 전도 핑크난다. 전도, 행정, 관리 등 각종각색의 자기위치, 조직 갖추었을 때 보다 더 완벽한 팀웍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다.

3) 축구 선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지원해주는 매니저도 있어야 한다.

물 떠다주는 사람, 코치, 감독 등 있어야 한다.

섭리는 가장 최전방에서 있는 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받쳐주는 각종각색의 팀웍이 있어야 최고의 팀웍이 된다. 장년부, 캠퍼스, 청년부 등 자기 위치에 있어야 잘 되어야 인류 축구가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동네 축구이다. 자기 위치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6. 실력

1) 하늘은 실력을 보신다. 똑같은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실력있는 사람을 쓰신다. 부지런히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축구장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에게만 볼만 넣어주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다.

2) 섭리뛰려고 마음 먹었으면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실력있게 뛰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고 했다.

똑같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쓰신다.

3) 말씀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 본격적으로 된다면 밤잠 안자고 축구 연습하듯이 말씀 연구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힘이 있는 것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 말씀갓고 사는 사람이다.

4) 이제는 감동만 갖고 심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논리있고, 체계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축구볼을 다루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7. 기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축구에서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을 철저히 닦아야 실력이 향상된다.

[잠언]

기본이 완성이다.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 섭리사 축구 기본

-> 패스, 드리블, 슈팅

2) 섭리신앙 기본

-> 기도, 성경, 찬양, 말씀전해야 한다.

3) 축구장 들어가려면 기본은

* 축구화 신는 것 -> 축구장 들어가기 전 축구화 묶는데 5분이면 묶는다. 야무지게 묶어야 지 그렇지 않으면 골차다가 끈이 풀려져 신경 써서 골을 마음대로 차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은 기도이다. 냉수목욕과 하나님께 기도 대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야무지게 하루의 삶을 다짐한다. 10분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조건 세웠기 때문에 부담이 안 생긴다.

* 유니폼 입는 것 -> 수영복 입고 축구장에 들어가면 나오라고 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이다. 축구선수는 축구복,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한다. 섭리뛰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의를 갖추어야 한다. 갖추면 보다 의를 갖춘다. 축구복 입듯이 행실에서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모시는 사도로써 회개하고 옳은 행실, 의를 갖추어야 한다.

8. 축구하면서 가장 큰 선물 (철구의 몸, 건강)

1) 나와 같이 철구의 몸을 갖고 가라.

건강에 대해서 신경써야 한다. R도 50대 나이로 뛰는 것처럼 정말 건강해야 한다.

20대는 뜻 세우는 것, 하나님 뜻 발견, 찾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30대는 부지런히 가야하고

40대는 꽃을 피고

50대는 열매 맺어야 한다.

2) 철저하게 체력을 키우고 건강해야 한다.

건강은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 된다면 건강한 정신 갖고 가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볼 때는 진짜 섭리를 뿔 때는 30-40대인데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초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고 했다.

4) 관리도 철저하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신앙도 안 좋다. 잘 먹고 운동하며 뛰고 달려야 한다. 지도자는 건강해야 한다. 지도자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힘이 있어야 R과 같이 뛸 수 있다-6754. "나와 같이 너희들도 건강하고 철인, 철구의 몸을 갖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녀야 한다." 축구도 건강을 위해서 뛰고 달려라. 하와도 아침에 건강하도록 운동해라.

9. 상대가 막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R은 불을 넣을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다. 불을 몰고 가는데 상대방이 막는다.

1) 생명을 붙잡고 가면 흑암들도 동시에 곧바로 착수한다.

섭리사 가는 길, 어려움, 막느냐? 보다 상대는 막는다. 사탄, 흑암들 극적으로 막는다. 사탄들도 잠 안자고 막는다.

2) 나의 정신, 사상, 나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R 촉구하신다.

* R의 사상, 정신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뛰는데 힘들다.

* 상대가 막아도 악착같이 뚫고 가야한다.

* 상대를 이길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게, 상대 막으니까 지혜롭게 연구하고 보다 작전을 짜야 한다. (섭리 작전전술)

3) 생명 끝인 넣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지혜롭게 전략과 전술 짜여야 한다.

"모사와 모략을 갖고" 사탄을 뛰어 넘어야 한다. 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하면 상대가 뛰어 넘는다.

4) 상대가 이기면 사탄 원망하지 말아라

* 실력부족

* 지혜부족

* 회개 - 진짜 회개는 전도해야 한다.

예) 전도 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안된다.

* 실력 갖추어야 한다.

밤잠 안자고 말씀 연구하고 30개론 공부하고 연구

공짜로 들어가는 골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5) R 골키퍼 5명 세우다가 10세우는 것 내가 10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뚫고 나간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것을 연습하려고 하는 것이다.

R 축구하시면 전반전 뛰어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이기게 하고, 후반전에서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뛴다.

10. 축구 하셨던 정신

1) 악착같이 정신과 그의 사상과 그의 기질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뛰는 것 힘들다.

2)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을 품어야 한다.
기도해야 나의 마음을 안다.

3) 나와 같이 몰고 그와 같이 몰고 헤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막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지혜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11. 섭리도 뛰는 사람이 안 힘들다.

축구 구경하는 사람 힘들고, 배 고프고, 지치고 춥고 은혜도 못 받고 한다.
섭리도 자꾸 뛰어야 자기 신앙 유지되고 자꾸 지치지 않는다. 말씀만 들으면 뭔가 답답하다. 나아가서 뛰어야 한다.

12. R 볼 잘 넣는 것

1) 축구는 감각으로 넣어야 한다.
나는 감각이 좋다. 발끝에서 볼을 넣는다. 감각에서 넣는다.

2) 신앙은 영감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13. 축구는 하나님의 교훈이 감춰져 있다.

14. 축구장 들어갈 때 마음가짐

1) 축구장 들어오면 항상 자기 앞에 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을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멍하니 면데 쳐다보면 안된다. 섭리사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다른데 쳐다보면 안된다.

2) 볼의 눈을 떼면 안된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 볼 받을 준비해야 한다. 갑자기 전도할 사람 오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 사람이 다른데 간다. 전도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전도 안하면 채어간다. 그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신속하게 가야한다-6753.

부딪치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 만나서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주신다. (염려는 주께, 성령님께)

지혜롭게 말씀 전해라. 항상 볼 받을 준비할 선수처럼 언제 나에게 전도해야 할 사람 오니 한눈 팔지 마라. 버스 타다가 도서관에서 전도될 수도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전도 스피드 시대, 섭리도 스피드 시대이다.

15. 불이 안 들어 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1) 계속 준비하라.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을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되면 거두느니라"

생명을 거둘 때 피곤함 타면 안된다. 피곤함 타면 체인지 해야한다.

2) 다른 사람 전도하려다가 자기가 실족하면 안된다.

99년 자기 실족하면 만사가 도로묵이다. 끝난 것이다. 차라리 나는 살아야겠다. 자기를 구원, 관리, 전도해야 한다. 퍽박 때문에 환란때문에 자기 실족하면 안된다. 재충전 하면서 가야 한다.

16. 모든 운동은 정신계에서 좌우된다.

[비유]

"치타팀" 오늘도 우리는 또진다. 진다고 생각하면 진다. 오늘은 우리도 독수리팀을 이기자.

-> 모든 것은 정신계에 있다. 기도했는데 될까, 안될까 하면 안된다.

믿음 조건 100% 세워야 한다.

17. 슛팅할 때

1) 볼 옆에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디딤발 발돼야 볼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디딤발 : 믿음

차는발 : 실천

믿음 조건 100% 그리고 행하라. 영적인 상황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섭리사 믿음조건, 실체조건 100% 세워야 한다.

2) 슛팅할 때 흔들리면 안 된다.

누가 악평의 말을 해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조건, 확실하게 세우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실천해야 한다.

담대하게 때리면 들어간다. 골이 안 들어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실천하면 들어간다.

18. 축구할 때 몸싸움

1) 때로는 자기팀 끼리도 몸싸움 있고, 상대하고도 몸싸움 있다.

[몸싸움의 의미]

몸싸움에서 밀리면 손해다. 강한자가 승리한다.

체) 한 회원 나갔다가 섭리 3년만에 다시 들어왔다. R 물어봤더니, 말씀은 좋은데, 형제들 때문에 속상해서, 시험 들어서 나갔다 하니 R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더니 잘못은 나간 사람에게 있다고 하셨다. 누구탓 할 필요없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변명꺼리 밖에 안 된다.

2) 서로 자기 편에도 몸싸움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낙심하고 주저 앉으면 안된다.

19. 축구할 때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의식하지 말고 뛰어라.

1) R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이 1000번 쳐다본다고 해서 더 뛰고 그렇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이다. 하나님 의식할지라도 사람 의식하지 말라. 주위에 의식하다보면 우쭐해지고 그런다.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10배를 더 전도할 수 있다.

2) R 이길때까지 하신다.

섭리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정) 언제까지, 이길때까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뜻인데 이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3) 담대하게 나가라.

축구에서 반드시 승리하듯이 우리 역사는 승리한다.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섭리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건 세워나가야 한다.

4)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절대 담대하게 믿음의 조건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조건 세워야 한다.

예) R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겁을 내고 두려워 하니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내 앞에서 두려워 하느냐, 하시며 꾸중하셨다.

5) 나처럼 승리하려면 나처럼 악착같이 뛰어라.

6) 축구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

주님이 가시는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다. 빛이 있음에 어둠을 물리치신다.

예) 축구하다가 R이 옆에서 뛰면 자기도 모르게 비끼는 경향은 R이 골을 볼도저처럼 몰고 가니까 움추려져서 피하게 되더라.

후반전 역사 우리는 영적으로 더 느껴야 한다. 먼저 오길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느끼라-6752. 기다리지 말고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여기에서 팀웍과 같이 잘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 되어야 한다.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된다. 몇몇사람 때문에 역사 무너진다.

<<볼에 대한 잠언>>

* 여러차례의 슛을 시도 했는데도 골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했을 때 결국은 골인에 성공하게 되듯 만사도 마찬가지이다.

* 한볼 한볼 정성스레 다룰 때 골을 넣을 수가 있듯이 섭리에서도 정성과 공을 들여서 뛰는 자는 신앙이 죽지 않는 법이다.

* 볼의 생명은 감각이다. 88.9.12.

* 선지자가 없으면 백성이 방탕하게 되듯 무리 가운데 지도자가 없으면 그 무리는 방황하게 되고 만다.

(축구 하시면서 B팀은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나 지도자가 없음을 지적하여 깨달은 영음) 88-6751.9.19.

* 순발력을 발휘하여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 볼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하고 쉬지 말고 언제 또 볼이 올지 모르니 뛰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88.9.22.

* 사람을 다룰 때도 그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지도할 수 있듯이 축구할 때도 볼의 마음을 읽을 때 볼을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이다. 88.9.24.

* 골키퍼가 제 위치의 역할을 등한시 했을 때 실점하게 되듯 제때 제위치 제차림 이는 은쟁반의 아로 새긴 금사과와도 같다. 88.9.28.

* 모르고 100년 사느니 알고 하루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88.9.29.

* 폼이 기본이고 기본이 기본이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 기회는 자기가 자신 있을 때이다. 그 때 얼른 때려야 한다. 자기가 볼을 차고 자기가 놀랄 정도가 되어야 한다.